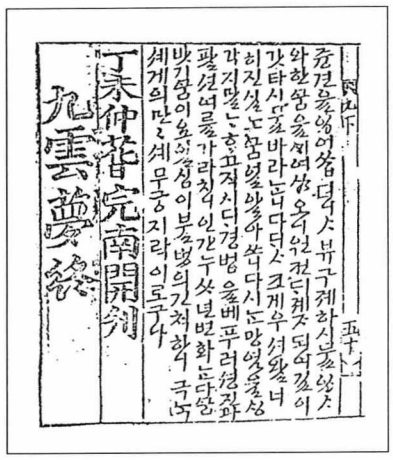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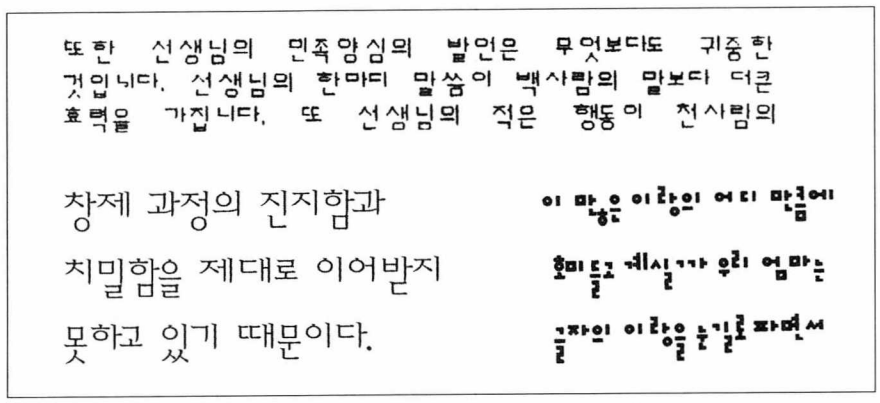
한글의 '맛' 살린 우리 글자꼴들

컴퓨터 보급으로 다양한 한글서체 개발

한재준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과 교수

활자꼴은 크게 정보전달과 이미지 표현의 역할을 맡고 있다. 정보전달 중심의 한글꼴은 큰 변화가 없는 편안하고 익숙한 형태를 띠며, 이미지 표현 중심의 글꼴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를 띤다. 출판물 성격에 따라 쓰임새에 알맞은 절제된 활용의 지혜가 필요하다.





민간의 자연발생적인 쓰기글자·재료·도구의 특성을 살린 나무새김자(왼쪽)와 글자의 본질·기능에 충실한 탈네모 틀 활자인 공한체·미르체(오른쪽).

한글은 그 태어남부터가 특별한 글자이다. 한자나 로마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나라 글자들은 그림에서 출발하여 오늘의 글자로 진화된 것인데 반해, 한글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글자 체계의 모든 원리가 연구되고 완성된 후, 날을 정해 반포한 글자다. 따라서 글자꼴의 발전과정 또한 독특하다. 다른 나라 글자들은 그리기에서 쓰기로 자연스럽게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글씨를 쓰는 과정에서 손글씨의 모양새가 오랫동안 서서히 다듬어지면서 오늘날의 활자꼴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활자꼴은 손글씨로 다듬어진 글자꼴을 따르게 된 것이다.

손글씨보다 먼저 인쇄된 한글 글자

그러나 한글꼴의 역사는 이와는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쳤다. 반포 당시의 〈훈민정음해례〉 등에 인쇄된 글자가 바로 한글의 처음 형태이다. 이와 같이 한글은 인쇄된 글자가 손글씨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붓과 먹을 이용해서 세로로 내려쓰는 글씨 쓰기 체제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오랫동안 한자 쓰기의 관습에 젖어 있었다. 그래서 창제 때의 쓰기 체제도 세로쓰기 관습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 형태에서만은 붓으로 쓰기에는 쉽지 않은 단순하고 간결한 기하학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울뚝불뚝하고 단순명쾌한 원시적 형태는, 새로운 글자를 만든 원리와 체계를 밝히려는 데 목적을 두고 글자의 뼈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원형(原形) 보존'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창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 원형은 일상 글씨쓰기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정책의 부재와 지속적인 연구단절은 자연히 한글꼴의 원형을 살리지 못하고 붓과 한자의 영향에 묻혀 버린 것이다. 이것이 태어나고도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특성과 장점을 제대로 빛내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창제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그 특성을 살리지 못한 문제점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한글 타자기의 글자꼴과 글자판 혼란의 문제는, 1980년대 컴퓨터의 보급·확대에 따라 컴퓨터상의 정보전달 체계인 한글코드(code)(완성형·조합형의 문제), 컴퓨터 화면상의 글자 출현 순서 등의 혼란으로 확대되었다. 글자생산 도구와 방식이 발전하고 일반에게 보급될수록 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아직까지도 각 컴퓨터마다 서로의 코드체계가 달라 정보의 생산과 저장, 수송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

예컨대, 인터넷 E-메일이나 PC통신을 이용해 한글꼴로 된 글자정보를 주고받을 때 글자가 깨져서 나타난다. 또한 문서작성용 프로그램에서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화면이 깜빡거린다거나, 받침자가 따로 찍히지 않거나, 표현되지 않는 글자도 있다. 더군다나 컴퓨터상에서 한글로 된 정보가 완벽하게 자료정렬(sorting)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정보 사회를 이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모두 낱소리 글자인 한글꼴을 뜻글자로 대표되는 한자의 기본틀인 네모틀 구조내에서만 만들어보려는, 근본원리를 무시한 닫힌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모틀과 탈네모틀 방향

오늘날의 글씨 쓰기 도구는 이미 붓이 아닌 펜과 글자판(keyboard)으로 바뀌었으며, 글자꼴의 생산과정도 새기고 찍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표현하는 디지털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활자꼴은 인쇄 활자만이 아니라 전자적 장치의 빛을 이용해서 TV나 컴퓨터, 단말기 등에 비춰지는 '디지털 폰트(Digital font)'를 포함한다. 글씨 쓰기 체제도 세로짜기에서 가로쓰기로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날의 한글꼴은 최정호(1916~1988)의 가로쓰기용 활자꼴 개발을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정호의 한글꼴을 시초로 '탈네모틀 한글꼴'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한 1990년까지를 세로짜기 체제내의 기본틀인 정네모꼴의 범위 속에서 새로운 한글꼴을 모색했던 소극적인 변화의 시기라 한다면, 90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는 네모틀 한글꼴과 네모틀을 과감하게 벗어버린 이른바 '탈네모틀'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한글꼴들이 대거 등장한 대 변혁기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네모틀과 탈네모틀 두 방향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의 한글꼴은 시간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활자 제작 도구와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제작과정이 간편해졌으며, 사회적 요구의 증가로 관련 전문회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원인은 가로쓰기 체제의 일반화와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활자꼴에 대한 요구가 자극이 되어 한글꼴의 창제정신과 원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의 한글 활자꼴 개발방향은 크게 다음의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로짜기 체제에서 개발·발전된 전통적인 한글꼴을 가로쓰기에 적합하도록 개선·보완하는 방향 ▲가로쓰기 체제에 알맞게 가로 시각 흐름선을 특별히 강조한 새로운 구조의 개발 방향 ▲로마자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폰트 디자인 흐름에 따라 이미지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향 ▲전통적인 옛 활자들의 맛을 오늘에 새로 살려 쓰기 위한 개발 방향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에 충실하고 글자의 기본 기능을 중시하는 체계적·합리적인 개발 방향.

활자꼴은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 하나는 정보전달이며, 다른 하나는 이미지 표현이다. 그래서 가독성 중심의 글꼴이 있는가 하면, 이미지 중심의 글꼴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한글꼴은 큰 변화가 없는 편안하고 익숙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며, 이미지 표현이 중심이 되는 글꼴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이것저것 많은 종류의 활자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출판물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쓰임새에 알맞은 선택과 경제원리를 적용한 절제된 활용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